

송주호의 테마 클래식 5 - 동화

글.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EBS 기술기획부 선임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5월에는 즐거운 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에 선물도 받고 학교에서는 봄 소풍도 갔었죠. 한 해 중 날씨가 가장 좋은 때이니만큼 기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도 챙겨줘야 하고, 좋은 날씨엔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말엔 가족끼리 놀러 갈 곳을 물색해야 하며,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날씨의 프리미엄까지 잃은 상태죠.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날들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힘든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즐거운 5월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재미있는 동화를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클래식은 진지한 음악이라 심각한 주제만 다룰 것 같지만, 사실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클래식은 대중음악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에 가벼운 음악도 상당히 많았죠. 요즘 클래식 교육을 받은 음악가 중에 진지한 분들이 많아 이런 곡들이 외면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들은 클래식에서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동화 음악이 클래식의 범주에서 작곡되고 있죠. 이러한 작품들이 클래식에 좀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 훔퍼딩크 :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1892)

동화작가라고 하면 안데르센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안데르센이 유명한 동화작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에서는 안데르센보다도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독일의 그림 형제가 있죠. 이들은 약 200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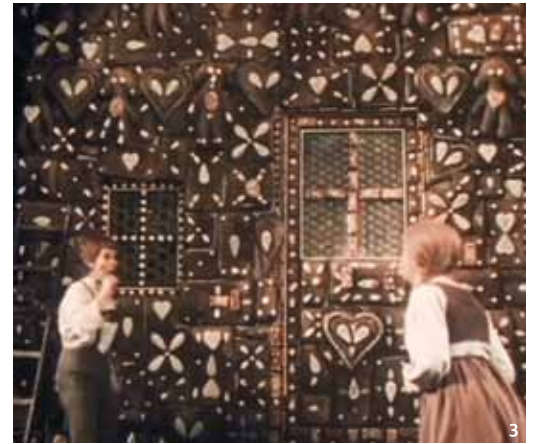
의 민간 설화를 수집하여 ‘어린이와 가정의 이야기’(Kinder- und Hausmärchen)라는 기념비적인 세 권의 독일설화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생 빌헬름 그림(Wilhelm Grimm : 1786~1859)이 동화를 수집하고 문학적으로 정리하는 등 동화작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형 야콥 그림(Jakob Grimm : 1785~1863)은 독일어사전을 편찬했던 중요한 언어학자로서 동생의 글을 다듬었죠. 그래서 ‘어린이와 가정의 이야기’는 19세기 초의 독일 문헌으로서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설화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양전래동화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설 공주’, ‘피리 부는 사나이’, ‘브레멘 음악대’, ‘늑대와 일곱 마리의 어린 양’, ‘황금 거위’ 등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루려고 하는 ‘헨젤과 그레텔’도 그림 형제의 책에 들어있는 설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모가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숲속에 버려둡니다. 남매는 빵부스러기로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했지만 새들이 먹어버려서 길을 잃고 말죠. 그러던 중 숲속에서 과자로 만든 마녀의 집을 발견합니다. 마녀는 그들을 잡아 오빠인 헨젤을 잡아먹기 위해 살 찌우고, 여동생인 그레텔을 하녀처럼 부립니다. 남매는 꾀를 내어 마녀를 불구덩이에 넣고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계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세 가족이 행복하게 삽니다. 민간설화에서는 계모가 아니라 친모가 아이들을 버리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림 형제는 동심 파괴를 우려하여 계모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계모에게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의문의 1패를 안기고 말았네요.

이 잘 알려진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사람은 엥겔베르트 훔퍼딩크(Engelbert Humperdinck : 1854~1921)라는 독일 작곡가입니다. 그는 1879년에 멘델스존 상을 받아 실력을 인정받았고, 1880년과 1881년에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의 ‘파르지팔’ 공연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그너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바그너의 아들이자 작곡가인 지크프리트 바그너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작곡가의 이름은 그리 친숙하지 않지만 그가 만든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Hänsel und Gretel)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오페라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것은 1890년에 조카를 위해 ‘헨젤과 그레텔’의 내용으로 인형극을 준비하면서 네 개의 노래를 작곡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훔퍼

1 그림 형제 2 엔젤베르트 홀퍼딩크 3 홀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딩크는 여동생의 대본에 맞춰 16개의 노래로 구성된 징슈필(Singspiel : 노래와 대사, 연기로 이루어진 일종의 독일 뮤지컬)을 만들게 되고, 이를 더욱 확대하여 1892년 1월에 오페라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초연하게 되죠. 그래서 베토벤의 기악곡 '합창 교향곡',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홀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내용이 크리스마스나 연말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의 단골 공연작에 등극했습니다.

이 곡은 바그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음악에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으면서도 독일의 민속음악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재능 있는 어린이나 아마추어도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자주 공연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이 곡을 초연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매우 훌륭한 걸작! 모든 것이 창조적이고 새로우며 진정한 독일적인 맛이 난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에서는 그림 형제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계모가 아닌 친모로 설정되어 있고, 헨젤과 그레텔이 버림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술을 깨어 숲에서 딸기를 따오는 벌을 받아 숲속에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불구덩이에 넣은 후 이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던 부모에 의해 발견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면에서 원작에 더 충실하면서도 동심을 파괴하지 않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추천 영상은 브리짓 파스벤더(헨젤), 에디타 그루베로바(그레텔), 헤르만 프라이(아빠), 게오르크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등 초호화 드림팀의 연주를 골라보았습니다. 1981년에

제작되었지만 워낙 뛰어난 연주자들인데다 친절하게도 영어 자막도 있어서 감상에 도움을 주는군요.

추천 영상 : youtu.be/JnMEI4aoUfo

> 코릴리아노 :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피리 부는 사나이 환상곡' (1982)

존 코릴리아노(John Corigliano : *1938)는 1991년에 '교향곡 1번'으로 그로마이어상, 2001년에 '교향곡 2번'으로 풀리처상, 그리고 다섯 번의 그래미상을 받는 등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의 저명한 작곡가입니다. 특히 영화 '레드 바이올린'의 음악을 담당하여 대중적으로도 이름을 알렸죠.

그는 문화의 용광로 미국의 작곡가답게 자신의 음악에 다양한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곡에서도 음악적 시나리오에 따라 여러 스타일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음악적 내러티브가 탄탄합니다. 그림 형제의 이야기에 맞춰 작곡한 플루트 협주곡 '피리 부는 사나이 환상곡'(Pied Piper Fantasy)은 이러한 코릴리아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소도시 하멜른에는 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시장에게 금화 1000냥에 도시의 쥐를 제거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시장이 이에 동의하자 그 남자가 마법의 피리로 모든 쥐를 바다에 빠뜨려 제거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부만 주고 남자를 내쫓아버리고 말죠. 이에 화가 난 남자는 얼마 후 되돌아와 피리를 불자 130명의 아이들이 따라나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동굴로 들어간 후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과 이면의 비리, 그리고 한 마을의 어린이 집단 유괴라는

끔찍한 사건이 결합된 사회적 교훈극이라고 할 수 있죠.

코릴리아노는 피리 부는 남자를 플루트 독주로 설정하여 동화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특이한 점은 어린이를 데려가는 부분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 어린이들이 플루트를 불며 등장하고, 독주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객석 뒤로 사라지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추천 영상 : youtu.be/eAhsmfTkrx4

> 차이코프스키 : 발레 '잠자는 숲 속의 공주', Op. 66 (1889)

그런데 그림 형제보다 앞선, 그들이 참조한 동화가 있었다는 사실! 바로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 : 1628~1703)의 '나의 어머니 거위 이야기'(Les Contes de Ma Mère l'Oye)입니다. 페로는 루이 14세 시절의 공작자였는데요, 프랑스 시민 혁명의 발발과 함께 공직에서 물러난 후 1697년 셋째 아들 피에르와 함께 동화집 '옛날이야기'(Histoires ou Contes du Temps Passé)를 완성합니다. 이 제목이 '나의 어머니 거위 이야기'의 원제목이죠. 이 책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와 '빨간 망토의 소녀', '장화 신은

고양이',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그림 형제의 책에도 수록되어있는데요, 이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이야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 1840~1893)는 이 중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발레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 하면 '백조의 호수, Op. 20'(1857~56)와 '호두까기 인형, Op. 71'(1892)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는 이 세 곡이 전부입니다. 발레음악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생각하면 그 수가 매우 적죠. 여기에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이 매우 혁신적이었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발레음악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활동했던 루트비히 민쿠스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춤에 맞춰진 맞춤 음악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데 고민되거나 거슬리지 않도록 단순한 선율과 명확한 리듬, 가벼운 화음 등을 사용했죠. 그래서 '돈키호테', '라 바야데르' 등 지금까지도 발레단들이 선호하는 작품으로 공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만 따로 연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음



4



5



6



7



8

- 4 존 코릴리아노
- 5 코릴리아노의 플루트 협주곡 '피리 부는 사나이 환상곡'
- 6 샤를 페로
- 7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 8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 속의 공주'



9



10

9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신데렐라'

10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악적인 가치가 그다지 없는 것이죠. 러시아에서는 '지젤'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인 아돌프 아당의 발레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의 발레 역시 음악만 따로 연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었으며, 각 장면을 음악적 이미지로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율, 변칙적인 리듬, 복잡한 화음을 거침없이 사용했죠. 그래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 맞춰 고전발레의 틀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용이 아닌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는 화려한 노래 실력보다는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 바그너의 가극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는 명곡과 아당과는 반대로 무용보다는 음악만 따로 연주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숲속의 나라에 공주가 태어나자 왕은 요정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녀가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공주가 16세 때에 물레에 찢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자 요정들은 마녀의 저주에서 죽음을 100년의 잠으로 바꿔주죠. 저주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왕은 나라의 모든 물레를 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공주가 16세가 되자 마녀는 노파로 변장하여 공주 앞에서 물레를 돌리고, 공주는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지다 바늘에 찢리고는 죽음 대신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요정들은 100년 후 깨어날 공주가 외롭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다 잠들게 합니다. 100년 후 사냥을 하던 왕자가 성안에 잠든 공주에게 키스를 하자 모두 깨어나게 됩니다. 나이스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둘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마무리해야 하지만, 공주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을 겪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꼬일 테

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어린이 독자의 정서를 위해 후에 삭제되었습니다.

이 곡의 초연은 1890년 1월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마린스키 극장에서 전설적인 안무가 마리우스 페티파의 안무로 열렸습니다. 추천 영상은 이곳에서 그 안무로 재현한 마린스키 발레단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의 1989년 공연입니다. 세계 공통 언어인 몸짓으로만 공연되니 오페라보다는 빠르게 이해되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추천 영상 : youtu.be/vFzrqjBUUN4

> 프로코피예프 : 발레 '신데렐라', Op. 87 (1940~44)

우아한 러시아 고전 발레 한 편 더 소개해드리죠.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Sergei Sergeyevich Prokofiev : 1891~1953)의 '신데렐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파리에서 '앙팡 테리블'로 불렸을 만큼 이슈 메이커였고, 피아니스트로서 미국 전역에서 콘서트 투어를 했던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45세에 소련에 정착하게 됩니다. 입국할 때는 환영을 받았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당시 소련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그랬듯이 많은 고초를 겪게 되죠. 음악도 듣기 편한 음악이나 정부의 요구에 맞춘 음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스탈린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의 죽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답지 않게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데렐라가 최초로 활자화된 것은 1634년 이탈리아였습니다. 지암비스타 바실레의 유고집인 '펜타메로네'에는 재를 의미하는 '체네레'(cenere)를 어근으로 하여 아궁이에서 일하느라 재를 뒤집어쓴 소녀라는 뜻으로 '체네레톨라'(Ceneretola)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은 '체졸라'(Zezolla)입니다. 로시니는 이 체네레톨라 이야기로 오페라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샤를 페로는 '체네레톨라'를 프랑스어로 바꾼 '상드리용'(Cendrillon)이라고 표기했지만 본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바뀌어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 후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체네레톨라, 상드리용과 같은 의미인 '신데렐라'(Cinderella)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추천 영상은 루돌프 누레예프가 안무한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공연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니 더욱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천 영상 : youtu.be/Y6G0WG6YwBo